

해외진출 ‘초짜’, “내가 밀어줄게”

“해외 진출이 처음이면 저희 회사가 보유한 해외공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공간을 동료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적외선 수신 모듈 전문 벤처기업 레이트론(대표 김동철)은 기술력은 좋으나 자금과 경험부족 등으로 동남아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사무실 및 공장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말부터 판매 및 개발활동 강화와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 위해 홍콩에 영업법인, 중국에 조립공장, 일본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인 홍콩 쿤통 공업지역에 위치한 현지 영업법인

과 일본 코토시내에서 20분거리에 있는 조인트벤처를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회사측은 “중국 센젠시 Baon-Ku에 위치한 중국 조립공장은 기술이전생산 및 OEM생산, 현지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레이트론은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으며 올해 목표는 1백억 가량이다.

김 대표는 “외국에서는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며 “많은 기업들의 좋은 기술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레이트론 김동철 대표(042-863-2840, E-mail : rayzero@raytron.co.kr)에게 하면 된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헤리트, 팔레이 게이트웨이, SIP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통신 부가서비스 솔루션 업체인 헤리트(대표 한미숙)는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유무선 통신망과 결합시켜주는 ‘팔레이 게이트웨이’와 차세대 통신망(NGN)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Application Server를 개발, 출시했다.

팔레이란 Parlay Group에 의해 정의된 망 독립적, 개방형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 응용서버가 통신사업자의 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기술이다.

팔레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망 경계를 넘어 기존의 망 자원들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신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밖에 누릴 수가 없었지만 팔레이 기술이 도입되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가 독점하던 서비스 시장에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헤리트가 개발한 팔레이 게이트웨이는 팔레이 API뿐 아니라 INAP, CAP, WIN MAP, SIP 등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유선, 무선 및 VoIP 망 등 어떤 종류의

망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가지 이종 망에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멀티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헤리트가 개발한 SIP Application Server는 차세대 VoIP망에서 웹, 전자메일, Virtual Presence등이 음성 및 영상과 결합한 형태의 ‘Enhanced Service’를 개발, 구동,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소프트웨어, 미디어 서버 등과의 인터페이스는 NGN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SIP을 사용한다.

이들 두 제품은 모두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에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 레벨의 개방성과, 개발된 서비스를 다른 종류의 망이나 플랫폼에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서비스 레벨의 개방성을 자랑한다. 또한 편리하고 강력한 운전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도입과 운용이 쉽다는 점도 망 사업자와 서비스 운영자에게 큰 매력이다.

한미숙 대표는 “세계적으로 팔레이와 NGN 제품의 상용화 적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시장 선점을 목표로 이들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헤리트는 지난 해 11월 KT에 지능망-인터넷 연동장치를 구축, 납품한 바 있다.

지능망-인터넷 연동장치는 KT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일반전화망(PSTN)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각종 지능망 부가서비스를 외부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KT의 망을 통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